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9/11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자의 양형(量刑) 기준과 사형제도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흉악범죄를 엄격히 처벌하지 않아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합의했다 하여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가 하는 인권 문제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범죄자 처벌 기준, 사형제도 존폐 여부와 흉악범 사형 집행, 경찰의 불심검문, 그리고 흉악범죄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598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9월 6~7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4.0\%$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8%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범죄자 처벌 강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 95%, ‘지금 대로가 좋다’ 2%
-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77%,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20%
-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사형제도 유지 의견, 2003년 대비 27%포인트 증가
-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 78%, ‘반대’ 17%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찬성’ 66%, ‘반대’ 30%
- 흉악범죄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범죄자 처벌 강도,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 95%, '지금 대로가 좋다' 2%

한국갤럽이 9월 6~7일 2일간 전국 성인 598명에게 범죄자의 처벌 강도에 대해 묻은 결과 95%가 '지금보다 더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금보다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는 0%, '지금 대로가 좋다' 2%,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질문) 귀하께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보다 엄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대로가 좋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77%,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20%

감형 관행이 적용되어 온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묻은 결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77%,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2%,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가 20%로 나타나 다수가 음주 범죄 처벌 강화를 원했다.

•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모름/ 의견없음
전체		598	77	2	20	1
성별	남성	296	72	3	24	1
	여성	302	81	1	16	2
연령별	19~29세	111	81	1	17	-
	30대	123	74	1	23	2
	40대	132	75	2	22	1
	50대	113	77	3	20	-
	60세 이상	119	77	3	17	3

(질문) 그 동안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깎아주는 재판 관행이 있어왔는데요. 귀하께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사형제도 유지 의견, 2003년 대비 27%포인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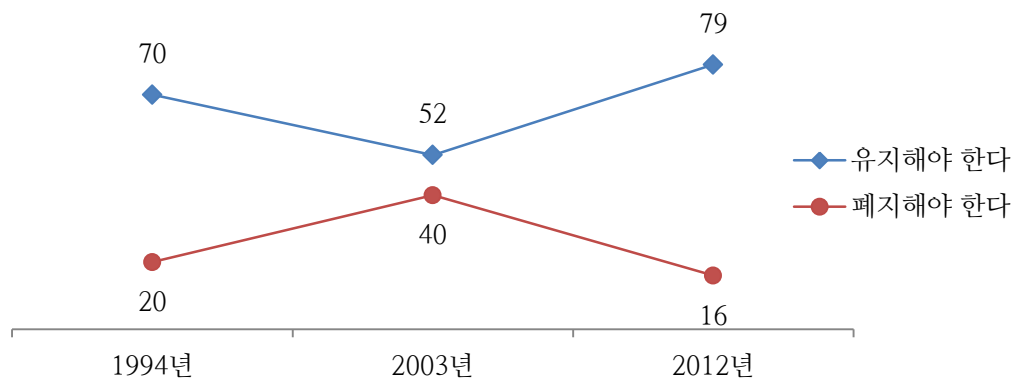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유지해야 한다' 79%, '폐지해야 한다' 16%, '모름/의견없음' 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2003 년 동일 질문 조사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2%, ‘폐지해야 한다’가 40%였던 것에 비해, 2012 년 이번 조사에서는 ‘유지’ 의견이 27%포인트 증가했다.

단,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에 따른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흉악범죄 사건들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러한 상황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 2012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유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름/의견없음
전체		598	79	16	6
성별	남성	296	76	18	6
	여성	302	81	13	6
연령별	19~29세	111	79	13	8
	30대	123	74	25	1
	40대	132	77	17	6
	50대	113	80	15	4
	60세 이상	119	83	7	10
주요 종교별	불교	117	86	10	4
	개신교	130	75	14	11
	천주교	72	74	21	6
	종교 없음	275	78	17	5

(질문) 귀하께서는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홍악범 사형 집행에 대해 '찬성' 78%, '반대' 17%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최근 홍악범죄가 잇따르자 일부에서는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홍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78%, '반대' 17%, '모름/의견없음' 5%로 다수 국민들이 홍악 범죄자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 홍악범 사형 집행에 대한 찬반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찬성	반대	모름/의견없음
전체		598	78	17	5
성별	남성	296	77	17	6
	여성	302	78	17	5
연령별	19~29세	111	78	18	4
	30대	123	71	23	6
	40대	132	74	19	7
	50대	113	78	19	3
	60세 이상	119	87	5	8

(질문)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홍악범죄가 잇따르자 일부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홍악범의 사형을 집행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선 생명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 집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홍악범의 사형 집행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불심검문에 대해 '찬성' 66%, '반대' 30%

최근 경찰이 강화한 불심검문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6%, '반대' 30%, '모름/의견없음' 4%로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를 위해서 불심검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불심검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남성(60%)보다는 여성(72%)에서 많았다.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찬반

(단위: %)

구분		사례수(명)	찬성	반대	모름/의견없음
전체		598	66	30	4
성별	남성	296	60	37	3
	여성	302	72	22	5
연령별	19~29세	111	69	26	5
	30대	123	55	42	3
	40대	132	65	31	5
	50대	113	68	30	2
	60세 이상	119	75	18	7

(질문) 최근 경찰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을 강화했는데요, 한편에선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홍악 범죄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한편 홍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잘못된 사회환경' 70%,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28%, '모름/의견없음' 2%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홍악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질문) 귀하께서는 홍악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